

저소득층 장애모 가정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적 적응능력의 발달*

Development of Cognitive and Social Adaptive Ability in Preschool Children
of Low income, Disabled Mothers*

윤혜경(Hye-kyung Yoon)¹⁾

장유경(You-Kyung Chang-Song)²⁾

박선희(Sun-Hee Park)³⁾

박윤조(Yun-Jo Park)⁴⁾

박혜원(Hye-Won Park-Choi)⁵⁾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of low income, disabled mothers. Sixty-four disabled mothers and their 3- to 5-year-old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participated. Children's IQ, receptive vocabulary, and social adaptive ability were measured with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Park et al.,1996),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1995), and Social Maturity Test(Kim & Kim, 1995), respectively. Results showed that IQ and receptive vocabulary scores were lower than average and that verbal IQ was positively related to shared reading time and library use; verbal IQ was negatively related to duration of child-care attendance. Children's social quotient was higher than average and positively

* 본 연구는 한솔교육문화연구원과 한솔교육희망재단의 '장애모 가정 유아의 한글프로그램 효과검증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신 장애모와 유아들, 서울 성프란체스코·시립북부·울산광역시·제주 장애인 종합 복지관, 광주 엠하우스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와 연구 담당 복지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¹⁾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복지연구소 연구교수

²⁾ 한솔교육문화연구원장

³⁾ 한솔교육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⁵⁾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Kyung Chang,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121-721, Mapogu, Mapodong, 141, Dabo Bl.,
E-mail : ykchang@eduhansol.co.kr

related to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amount of books in the home.

Key Words : 장애모(disabled mother), 수용언어(receptive vocabulary), 사회성 지수 (social quotient), 언어성지능(verbal IQ).

I. 서 론

아동발달에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영, 유아기 아동의 발달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역할은 영유아와의 놀이 상황, 책읽기 상황, 문제해결 상황에서 중요한 변인이며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의 양(장유경 · 이근영 · 곽금주 · 성현란, 2003; Hart & Risley, 1995)과 상호작용의 방식(이지연 · 이근영 · 장유경, 2004; Hart et al., 1995), 어머니의 민감성(Baumwell, Tamis-LeMonda, & Bornstein, 1997) 등은 언어발달, 인지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다양한 특성(우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10대 어머니)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Cumming & Davies, 1994). 특히 어머니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장애를 가진 장애모의 경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전국의 약 47만 명으로 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김정우, 이미옥, 2000).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91.0%(보건복지부, 2005, 2006)가 결혼을 하고 이들 중 90% 이상이 임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욕구와 경험은 장애나 비장애 여성에게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연구소, 2002). 그러나 장애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정상 어머니들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장애모의 경우, 기본 양육 및 자녀 돌봄을 위한 활동이 제한된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혹은 지체 장애의 경우, 영유아들을 위하여 섭식, 배변에서의 도움, 목욕이나 청결, 기본 양육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유명화 · 엄미선, 2007). 실제로 장애모의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친정이나 시댁에 의뢰하여 양육하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김정우 · 이미옥, 2000). 또한 장애모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을 위해 충분한 지적 자극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모의 경우, 영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아와의 공동주의(Butterworth & Cochran, 1980)가 어렵고 아동의 인지적, 학업적 기능을 예측하는 중요한 활동인 함께 책읽기(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도 용이하지 않다. 청각 장애모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대화조차 용이하지 않고 지체장애의 경우, 유아들의 신체발달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신체적 경험을 제공하기 힘들다(유명화 · 엄미선, 2007).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모들이 혼자서 이동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아동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가정 밖의 다양한 시설이용(병원, 박물관이나 도서관 방문)이나 교육적, 사회적 활동의 경험이 제한되기 쉽다. 게다가 장애모의 경우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김정우 · 이미옥, 2000) 어머니의 학력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이다(Bornstein,

Hahn, Suwalsky, & Haynes, 2003). 특히 장애모가 저소득층이라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의 양육에서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하기 힘들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중, 고소득층에 비해 지능, 언어능력 및 성취 검사들 점수가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결과이다(Brooks-Gunn, & Duncan, 1997; Smith, Brooks-Gunn, & Klebanov, 1997). 실제로 여성장애인은 결혼 배우자로 장애인이거나 학력이 낮은 배우자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서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오혜경, 2004). 저소득층 장애모의 경우에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교육비용 과다지출을 큰 부담으로 지적하였다(이정선, 2007). 더욱이 장애모의 경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로 인하여 부정적 자아개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강민희, 1998) 스트레스가 높다. 조희숙(2005)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 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여유가 없어지므로 자녀들과 대화하기 보다는 복종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더 가치를 두게 된다. 저소득층 장애모의 경우에는 장애에서 오는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져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것이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저소득층 장애모 어머니들은 정상 어머니들에 비해 현재의 장애 특성이나 장애모의 심리적 특성 등으로 자녀 양육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더욱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적 기회나 뒷받침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이 아동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모의 아동들은 정상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연구들(강영택 · 이나미, 1995; 박경숙, 1986; 조광순,

2004; McLean, 1996; Johnson-Martin, Mens, Attermeier, & Hacker, 1991)은 비교적 많이 있고 장애모의 실태나 특성(김혜경, 2005; 김정진, 2004; 오혜경 · 김정애, 2000; 이미옥, 2000; 이성덕, 1999; Habib, 1995)에 대한 연구들은 더러 있으나 장애모의 정상 자녀의 발달, 자녀양육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저소득 장애모일 때 이들의 3~5세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적 적응능력의 발달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장애모의 장애특성이나 심리적 특성, 장애모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적자극환경 등이 이들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저소득층 장애모의 정상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적 적응능력의 발달은 어떠한가? 저소득층 장애모의 유아들은 어머니의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 가정의 유아들에 비해 인지발달이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 적응능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적응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문제 2> 저소득층 장애모의 유아들의 인지 및 사회적 적응능력의 발달에 관련 되는 변인은 무엇인가?

- 2.1 어머니의 특성(어머니의 학력, 취업여부, 장애의 종류, 양육태도, 자존심, 양육관련스트레스 등)이 유아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적 적응능력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2.2 사회경제적 수준(아버지의 학력, 월수입, 주거형태)이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적 적응능력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3 지적자극환경의 특성(가정의 도서보유수, 독서활동 빈도와 시간, 텔레비전의 시청과 통제 여부, 도서관 이용여부, 어린이집 활동시간)이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적 적응능력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적극적 참여, 권위·과보호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7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0, .74, .65 이었다. 자녀 양육스트레스 검사(강희경·김기현, 1999)는 5점 척도의 총 32문항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요인 12문항, 부모역할수행 부담감 및 스트레스요인 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요인 8문항이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82, .79, .76이었다. 자존감 검사는 Rosenberg (1965)의 척도를 허선자(1992)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측정하며 총 9문항이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솔교육희망재단의 ‘저소득층 장애모 자녀의 한글프로그램 효과연구’에 참여하는 가정으로서 서울, 광주, 울산, 제주지역 사회복지관에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정 중 어머니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3~5세의 한글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자녀가 있는 64가정이다. 연구 참여 유아의 평균연령은 4세 3개월로 연령별로 보면 3세(평균 3세 6개월) 33명, 4세(평균 4세 3개월) 22명, 그리고 5세(평균 5세 7개월) 9명이었다. 이중 남자는 36명, 여자는 28명이었다. 또한 지역별 연구대상 가정 수는 서울 27명(42.2%), 광주 17명(26.6%), 울산 6명(9.4%) 그리고 제주 14명(21.9%)이었다.

이 외에 장애모의 특성으로 장애모의 장애유형과 학력, 취업여부가 조사되었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부 학력, 월수입, 주거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정의 지적자극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의 도서보유수나 유아의 독서활동,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시청시간과 통제여부, 도서관이용, 어린이집 참여시간을 조사하였다.

2. 측정도구

3. 자료수집 및 분석

유아를 대상으로는 유아용 웨슬러 지능검사(K-WPPSI, 박혜원·곽금주·박광배, 1996), 수용언어능력을 측정하는 그림어휘력검사(PPVT-R,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1995), 사회적 적응능력을 측정하는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Test, 김승국·김옥기, 1995)를 실시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자녀 양육태도 검사(임미리, 1997)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지도, 애정

각 복지관에서 일차로 연구 대상 집단을 선정하여 어머니의 장애등급 및 사회경제적 특성, 자녀의 연령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의 유아 대상으로는 심리 검사자가, 어머니 대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각각 복지관의 독립된 방에서 개별적으로 검사와 설문을 실시하였다. 시각장애나 청각 장애모 등과 같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수화통역자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유아의 검사에는 대략 1시간 30분, 어머니의 설문에는 20분 정도 소요되었

다. 이후 사회복지사가 개별 가정방문을 하여 독서실태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이에는 가구당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유아의 지능, 수용언어능력, 사회성 지수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유아의 지능, 수용언어능력, 사회성숙도검사 수행에 미치는 장애모의 특성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적자극 환경요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변량분석을 하였다. 지능지수, 수용언어능력, 사회성지수 발달의 예측요인과 그 설명정도를 밝혀보고자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장애모 특성과 가정의 특성

1) 장애모의 특성

우선 모 학력을 보면 고졸이 64.1%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중졸 12.5%, 초졸 7.8%, 무학 4.7%로 93.4%의 어머니들이 고졸 혹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의 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4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각장애 17.2%, 청각장애 14.1%, 지적장애 14.1%, 뇌병변 6.3% 그리고 기타 3% 순이었다. 또한 모 취업 여부에서는 취업이 12.5%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였다.

장애모의 어머니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및 자존감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우선 장애모들의 자녀 양육에서 합리적 태도($M=3.57$, $SD=.717$), 애정·적극적 태도($M=3.83$, $SD=.749$), 권위·과보호적 태도($M=2.88$, $SD=.604$)는 임미리(1977)의 연구에서 비장애모들이 합리적 태도, 애정·적

극적 태도, 권위·과보호적 태도에 각각 3.79, 3.80, 그리고 2.80을 나타낸 것과 유사하였다. 일상생활관련, 자녀양육관련 그리고 타인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평균 2.68 정도로 안지영(2001)의 연구에서 비장애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평균 2.72였던 것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좀 더 낮은 수준이었다.

2) 가정의 특성 : 사회경제적 수준과 지적자극환경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주거형태를 보면 영구임대가 43.8%로 가장 많고 자가와 월세가 각각 14.1%, 17.2%로 가장 적었다. 월수입을 보면 51~100 만원 이하가 61.0%로 가장 많았고 50 만원 이하도 5.1% 있었다. 일반적으로 170 만원 이하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통계청, 2005) 볼 때 본 연구 집단 모두가 저소득층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37.5%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은 12.5%로 어머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가정의 자녀수는 2명이 42.2%, 1명인 가정이 23.4%였으며 3명 이상인 가정도 12.9%로 평균 1.88명의 자녀를 두어서 일반 가정 당 1.16명(통계청, 2005)의 자녀수에 비해 많은 편이다.

또한 지적자극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가정의 총 도서보유량은 '20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정이 56.3%이었으며 10권 이하인 가정도 25.9%나 되었다. 또한 한 달에 한권도 책을 구입하지 않는 가정이 64.1%에 달하였다. 유아의 독서활동에 대한 조사를 보면 78.1%의 유아가 '혼자서' 책을 읽으며 독서의 시간은 74.1%가 30분 이내였다. '누군가와 함께 책 읽는 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75.0%였다. 대상 가정의 60.9%가 지역 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 이용을 하지 않으며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87.0%)이 한 달에 1~2번 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1시간 이상이 60.9%였고 비디오가 있는 가정의 37.5%가 30분 이하, 14.1%가 1시간 이상 시청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56.3%의 가정에서 텔레비전/비디오 시청에 대해 부모님이 통제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유아의 61.8%가 7~9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고 9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도 9.1%였으며 모든 유아들이 하루에 5시간 이상 유아기관에 다니고 있었다.

2. 유아의 지능, 수용언어능력 및 사회적 적응 능력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그림어휘력검사, 그리고 사회성숙도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유아의 연령, 장애모 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적자극환경 등에 따른 지능, 수용언어능력 그리고 사회적 적응능력의 발달은 다음과 같았다.

1) 지능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지능검사 수행의 평균과 유아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지능검사 결과를 보면 동작성 지능은 평균 86.89, 언어성 지능은 평균 85.69 그리고 전체지능은 평균 84.59로 유아의 지능은 평균하의 수준에 속했다. 지능검사의 결과를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우선 유아의 전체지능은 3세(M=81.12, SD=13.74), 4세(M=86.00, SD=13.44) 그리고 5세(M=93.89, SD=14.39)로 연령과 더불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F(2, 61)=3.234, p<.05), 동작성 지능도 연령과 더불어 평균 81.00(12.88), 평균 90.73(14.21), 그리고 평균 99.11(17.92)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표 1> 유아의 연령, 성에 따른 지능의 평균 및 차이 검증 (N=64)

요인	구분	지능 지수		
		언어성 지능	동작성지능	전체 지능
		M(SD)	M(SD)	M(SD)
연령	3세	85.09(12.88)	81.00(12.88)	81.12(13.74)
	4세	84.27(12.33)	90.73(14.21)	86.00(13.44)
	5세	91.33(9.55)	99.11(17.92)	93.89(14.39)
	평균	85.69	86.89	84.59
F		1.132	5.506**	3.234*
성	남	84.39(11.81)	85.28(16.32)	83.14(13.86)
	여	87.36(12.99)	88.56(18.13)	86.46(14.69)
	평균	85.69	86.89	84.59
	F	.861	.912	.730

*p<.05 **p<.01 ***p<.001

(F(2, 61)=5.506, p<.01). 그러나 언어성 지능에서의 연령에 따른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유아의 성에 따른 어떠한 변화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유아의 지능검사 결과를 보면, 우선 장애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전체지능의 차이가 유의하여 취업모의 경우(M=94.88, SD=18.357)가 비취업모(M=83.00, SD=13.154)보다 높았다(F(1, 61)=5.134, p<.05). 그 외에 어머니의 학력이나 장애유형 등의 어머니의 특성이나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어떠한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동작성 지능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취업모의 경우(M=97.88, SD=20.86)가 비취업모의 경우(M=84.92, SD=15.97)보다 높았다(F(1, 61)=4.248, p<.05). 가정의 지적자극환경 중에서는 도서관 이용여부(F(1, 56)=4.674, p<.05)와 도서관 이용빈도(F(1, 54)=3.642, p<.05)에 따른 유아의 언어성 지능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도서관을 이용한 유아(M=91.11, SD=12.45)가 비이용유아(M=84.03, SD=11.33)보다 언어성 지능이 높았다.

2) 수용언어능력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을 측정한 PPVT 검사결과, 유아연령과 성에 따른 평균과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의 평균은 45.53으로 3~5세에서 모두 평균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PPVT의 점수는 유아의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2> 유아의 연령, 성에 따른 수용언어능력의 평균 및 차이검증 (N=64)

요인	구분	수용언어능력		F
		M(SD)	평균	
연령	3세	45.00(31.51)	45.53	.106
	4세	41.91(31.09)		
	5세	56.33(33.15)		
성	남	46.67(30.76)	45.53	.676
	여	44.07(32.78)		

* $p<.05$ ** $p<.01$ *** $p<.001$

수용언어능력은 어머니의 학력이나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능점수의 경우와 같이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F(1, 61)=13.677, p<.001$). 즉, 취업모의 유아($M=81.00, SD=22.77$)가 비취업모 유아($M=41.00, SD=29.25$)보다 점수가 높았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월수입이나 주거형태, 아버지의 학력 중에서는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여($F(3, 58)=2.761, p<.05$), 전세의 경우($M=60.86, SD=31.71$)가 제일 높고, 영구임대($M=47.36, SD=33.44$), 월세($M=31.36, SD=25.80$), 자가($M=30.11, SD=22.67$)의 순서를 보였다. S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세와 자가($p<.002$) 또 전세와 월세 경우($p<.02$)의 어휘력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장애모 가정의 지적

자극환경으로 조사된 여러 요인 중 장애모 가정의 총 도서보유량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미하여($F(3, 54)=3.340, p<.05$), 책을 5권 이상 가진 유아($M=44.00, SD=33.36$)가 책을 5권 보다 적게 가진 유아($M=16.80, SD=12.86$)에 비해 수용언어능력이 높았다.

3) 사회적 적응능력

유아의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보인 연령과 성에 따른 수행평균과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사회성숙도 검사 수행에서 보인 사회성지수(SQ)의 평균은 134.63이었다. 사회성지수는 IQ처럼 유아의 사회연령/생활연령*100으로 정해지므로 134.63이라는 수치는 유아의 나이에 비해 사회적 적응능력이 매우 높으며 또한 지능검사 점수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것이다.

연령에 따른 사회성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 61)=4.533, p<.05$). <표 3>의 연령별 사회성지수를 보면 4세 보다 3세 유아의 사회성지수가 월등히 높다. 5세 아동의 점수는 연령에 따라 일반적인 행동이나 특성이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정정자, 2005). 사회성지수는 어머니가 유아의 일상행동을 회상하여 답한 것을

<표 3> 유아의 연령, 성에 따른 사회성지수의 평균 및 차이검증 (N=64)

요인	구분	사회성지수		F
		M(SD)	평균	
연령	3세	140.97(32.40)	134.63	4.533*
	4세	120.67(19.78)		
	5세	145.49(19.75)		
성	남	133.53(24.39)	134.63	.120
	여	136.04(33.71)		

* $p<.05$ ** $p<.01$ *** $p<.001$

기초로 점수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3세 유아의 높은 수치는 3세 어머니가 유아행동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를 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어머니의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뇌병변($M=168.22$, $SD=37.68$)이나 시각장애($M=150.80$, $SD=18.80$)의 경우가 가장 높고 지체장애($M=133.69$, $SD=$

22.99), 청각장애($M=131.69$, $SD=30.80$)가 그 다음으로 높으며 지적장애($M=102.67$, $SD=22.20$)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F(4, 57)=6.962$, $p<.000$). 이는 대체로 어머니가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할수록 유아의 사회성숙도 지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표 4> 유아의 지능, 수용언어, 사회성지수와 유아특성, 장애모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지적자극환경 변인, 장애모의 심리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N=64)

변인	지능지수			수용언어 능력	사회성지수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전체 지능		
유아 특성	연령 성	-	.48**	.41**	-
장애모 특성	모학력 장애유형 취업여부	-	-	-	-
장애모 심리적 특성	양육 태도	-	-	-	-
	합리적 애정적극적 권위과보호	-	-	-	-.35**
	자존감	-	-	-	-.37**
	일상생활 스트레스	-	-	-	-
	자녀양육 타인양육	-	-	-	-
	사회 경제적 수준	월수입 부학력 주거형태	-	-	-
지적자극 환경	도서보유량	-	-	-	.37**
	한달도서구입량	-	-	-	.32*
	혼자책읽는시간	-	-	-	-
	함께책읽는시간	.33*	-	-	.26*
	텔레비시청시간	-	-	-	-
	비디오시청시간	-	-	-	-
	TV/비디오통제관리	-	-	-	-
	도서관이용유무	.28*	-	-	-
	도서관이용빈도	.29*	-	-	-
어린이집활동시간	-.32*	-.35**	-.38**	-	

* $p<.05$ ** $p<.01$

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F(1, 61)=7.983, p<.01$), 취업모 가정 유아($M=159.27, SD=34.33$)에서 비취업모의 유아($M=130.40, SD=25.9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정의 지적자극환경 요인 중에서 총 도서보유량에 따른 사회성지수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 54)=4.399, p<.008$).

3. 유아의 지능, 수용언어능력, 사회성지수의 예측요인

유아의 지능, 수용언어능력, 사회성지수 수준을 설명하는 예측요인과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유아 특성, 어머니의 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지적 자극환경 변인들과 유아의 지능검사, PPVT, 사회성숙도검사 수행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전체지능은 유아의 연령, 장애모의 취업여부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유아의 어린이집 활동시간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언어성 지능은 함께 책읽는 시간, 도서관이용, 그리고 도서관 이용빈도와는 정적 상관관, 어린이집 활동시간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동작성 지능은 유아의 연령, 장애모의 취업여부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어린이집 활동시간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은 장애모의 취업여부, 가정의 도서보유량, 함께 책읽는 시간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사회성지수는 모 취업여부, 도서보유량과는 정적 상관관을 보였고 부모의 합리적 양육태도, 애정·적극적 태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의 연령은 동작성 지능, 전체지능과 같은 지능 중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즉, 타고나는 지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보인다. 그리고 장애모 특성 중 모 취업여부가 언어성 지능을 제외한 동작성, 전체지능, 수용언어능력, 사회성 지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보이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의 지적 자극특성 중 가정의 도서보유량은 수용언어능력, 사회성지수와 정적 상관관, 함께 책보는 시간은 언어성 지능, 수용언어능력과 정적 상관이었다. 어린이집 활동시간은 언어성, 동작성 그리고 전체지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어머니의 합리적, 애정·적극적 양육태도가 사회성 지수와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유아의 지능, 수용언어능력, 사회성지수의 발달 예측요인과 그 정도를 밝혀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전체 지능 발달의 예측요인

장애모 가정 유아의 전체지능 발달 예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 장애모 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적 자극환경 요인들 중에서 전체지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유아연령, 모 취업 그리고 어린이집 활동시간의 세 가지 요인을 넣고 단계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나와 있다. 유아연령은 16%($F(1, 62)=12.74, p<.001$), 연령에 모취업의 요인이 추가되면 21%($F(2, 61)=3.07, p<.000$)를 설명하였다. 세 요인을 모두 넣은 경우에 조정된 $R^2=.28$ 으로 전체지능의 28%를 설명하였다($F(3, 51)=8.102, p<.000$). 세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유아연령 $\beta=.39, p<.001$, 어린이집 활동시간 $\beta=-.30, p<.05$ 이었다. 전체적으로 유아의 연령이 전체지능의 발달에 대한 16%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며 어린이집 활동시간도 전체지능의 7%정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표 5> 전체지능에 대한 예측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N=64)

종속변인	단계	예측요인	β	t	R	R^2	F
전체지능	1	유아 연령	.39	3.29***	.41	.16	12.74***
	2	모취업여부	-.18	-1.59	.48	.21	9.13***
	3	어린이집 활동시간	-.30	-2.55*	.57	.28	7.90***

* $p<.05$ ** $p<.01$ *** $p<.001$

2) 언어성 지능 발달의 예측요인

유아의 언어성 지능의 발달에 대한 예측요인으로는 함께 책 읽는 시간, 도서관이용여부와 도서관 이용빈도 그리고 어린이집 활동시간의 네 요인을 넣고 단계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함께 책읽기 요인이 9% 정도를 설명하였고($F(1, 56)=6.821, p<.012$), 도서관이용과 이용빈도가 추가되면 18% 정도를 설명하였다($F(3, 54)=5.044, p<.004$). 네 요인으로는 조정된 $R^2=.267$ 로 언어성 지능의 27%를 설명하였다($F(4, 50)=5.918, p<.001$). 네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유아함께 책읽기 시간 $B=.33, p<.01$ 과 어린이집 활동시간 $\beta=-.30, p<.05$ 의 두 요인이 유의미한 예측요인이었다. 유아의 언어성 지능은 함께 책읽는 시간이 9%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며 어린이집 활동시간도 9% 정도를 예측함을 알 수 있다.

3) 동작성 지능 발달의 예측요인

유아의 동작성지능 발달 예측요인으로 유아연

령, 장애모의 취업여부 그리고 어린이집 활동시간의 세 요인을 넣고 단계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가 <표 7>이다. 연령요인은 동작성 지능의 22%를 설명하였다($F(1, 62)=18.57, p<.000$). 모취업 요인을 추가하면 27%($F(2, 60)=12.40, p<.000$), 어린이집 활동시간이 추가되면 7% 정도 추가되어 세 요인으로 33%를 설명할 수 있었다($F(3, 50)=9.76, p<.000$). 세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유아연령 $\beta=.473, p<.000$ 과 어린이집 활동시간 $\beta=-.266, p<.05$ 의 두 요인이었다. 유아의 동작성 지능은 유아의 연령이 22%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용언어능력 발달의 예측요인

장애모 가정 유아의 수용언어능력 예측요인으로 모취업 여부, 보유도서량 그리고 함께 책 읽는 시간의 세 요인을 넣고 단계적으로 회귀분석하였다. 모취업 여부는 17%($F(1, 61)=13.68, p<.000$), 가정의 도서 보유량을 추가하면 26%($F(2, 54)=$

<표 6> 언어성 지능에 대한 예측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N=64)

종속변인	단계	예측요인	β	t	R	R^2	F
언어성 지능	1	함께 책읽는 시간	.33	2.81**	.33	.09	6.82*
	2	도서관 이용유무	-.15	-.72	.45	.17	6.82**
	3	도서관 이용빈도	-.22	-1.00	.47	.18	5.04**
	4	어린이 활동시간	-.30	-2.56*	.57	.27	5.92***

* $p<.05$ ** $p<.01$ *** $p<.001$

<표 7> 동작성 지능에 대한 예측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N=64)

종속변인	단계	예측요인	β	t	R	R^2	F
동작성 지능	1	유아연령	.47	4.11***	.48	.22	18.57***
	2	모취업 여부	-.12	-1.02	.54	.27	12.40***
	3	어린이집 활동시간	-.27	-2.66*	.61	.33	9.76***

* $p<.05$ ** $p<.01$ *** $p<.001$

10.93, $p<.000$) 그리고 함께 책보는 시간을 추가한 세 요인으로 수정된 $R^2=.293$ 으로 수용언어능력의 29%를 설명하였다($F(3, 53)=8.273$, $p<.000$). 세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모취업 $\beta=-.34$, $p<.01$, 도서보유량 $\beta=.37$, $p<.01$ 의 두 요인이 수용언어능력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5) 사회성지수 발달의 예측요인

유아의 사회성지수의 발달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은 모 취업여부, 가정의 도서보유량, 모의 합리적 양육태도와 애정·적극적 양육태도

의 네 요인이므로 이 네 요인으로 단계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모취업 여부는 조정된 $R^2=.116$ 으로 사회성지수의 10%를 설명하였다($F(1, 61)=7.98$, $p<.01$). 도서보유량 요인을 추가하면 15% ($F(2, 54)=5.94$, $p<.01$)를 설명하였다. 합리적 양육태도가 추가되면 16%정도 추가되어 31%를 설명할 수 있었다($F(3, 53)=9.314$ $p<.001$). 이 세 요인에 애정·적극적 태도가 추가되어 네 요인으로 역시 사회성지수의 31%를 설명하였다. 네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모취업여부 $\beta=.36$, $p<.01$ 만이 사회성지수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이었다.

<표 8> 수용언어능력에 대한 예측요인들의 회귀분석 (N=64)

종속변인	단계	예측요인	β	t	R	R^2	F
수용 언어능력	1	모취업 여부	-.34	-.34**	.43	.17	13.68***
	2	도서보유량	.37	3.25**	.54	.26	10.93***
	3	함께 책 읽는 시간	.21	1.84	.58	.29	8.73***

* $p<.05$ ** $p<.01$ *** $p<.001$

<표 9> 사회성지수에 대한 예측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N=64)

종속변인	단계	예측요인	β	t	R	R^2	F
사회성 지수	1	모취업여부	-.36	-3.1**	.34	.10	6.82*
	2	도서보유량	-.19	1.67	.42	.15	6.82**
	3	합리적 양육태도	.30	1.79	.59	.31	5.04**
	4	애정·적극적 태도	.17	1.04	.60	.31	5.92***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장애모 가정 유아들의 발달양상 즉 인지능력(지능과 수용언어능력)과 사회적 적응력의 발달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대상 장애모의 특성을 보면 장애모들은 예상과 달리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등이 일반가정 어머니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이 장애모의 심리적 문제 극복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정우·이미옥, 2000; 이혜경, 2007). 여성장애인들은 모성경험을 하면서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자녀들의 성장이 장애모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안정까지도 의미하게 되는 것 같다.

다음으로 유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모 가정 유아의 지능은 전체 지능지수 평균 84.59로 평균하 수준이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인지기능, 언어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많은 연구들(Brooks-Gunn & Duncan, 1997; Smith et al., 199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유아의 연령과 어린이집 활동시간이 전체 지능과 동작성 지능을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반면에 함께 책읽는 시간과 어린이집 활동시간이 언어성 지능을 예측하였다. 이중에서 어린이집 활동시간은 유아의 지능점수와 역상관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모 유아의 평균 하 수준의 지능 특히 언어성 지능의 정체는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발달초기에 인지적 자극이나 교육적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초기의 결핍이 지속되면서 경험하는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본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험은 프로그램의 질이나 교사의 수준 등에 크게 좌우되고(Brooks &

Gunn,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어린이집의 영향력은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하였던 다른 변인들과 함께 추후 연구에서 더 본격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장애모 가정 유아의 수용언어능력도 평균 46.27로 중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은 유아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었고, 모 취업 여부와 가정의 보유도서량이 어휘력을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에서의 큰 차이를 가져왔는데 이는 여성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인 모든 여건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장애부모의 경우, 취업여부는 유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어머니의 민감성, 정서적 지지, 침입행동, 인지적 자극 등이 수용언어능력이나 표현어휘력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Culp, Hubbs-Tait, Culp, & Starost, 2000; Fagot & Gauvain, 1997; Olson, Bates, & Kaskie, 1992),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어머니와 상호작용 경험의 질과 양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이 아동의 어휘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Hart et al., 1995)와 맥을 같이 한다.

장애모 가정 유아의 사회성지수는 평균 13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성지수는 유아연령, 모 장애유형 그리고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모 취업여부는 사회성 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는 어머니의 장애가 심하여 유아가 신체적, 물리적으로 더 독립적이어야 하는 경우 부모가 지각하는 유아의 사회적 독립심이나 적응력이 더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성 지수에서 3세가 유독 높게 나온 것은 장애모의 3세가 실제로 정상 부모의 3세보다 더 성숙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성 지수는 부모의 자기보고이므로 장애모들이 유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의 행동상의 유능성에 대해 더 과대평가하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또래와의 상대적 비교의 기회가 더 적어서 자녀의 능력이 과대평가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모가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녔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지수가 낮게 나왔는데 이런 어머니일수록 유아에 대한 비교적 합리적이고 정확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들은 향후 장애모와 함께 정상 어머니들의 평가를 비교해 보거나 어머니 외에 어린이집 교사의 평가를 함께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장애모 유아의 지능이나 수용언어능력, 사회성지수의 발달과 그 영향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유아들은 생활 속의 적응력이나 독립심은 매우 높으나 실생활이 아닌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지적 과제의 수행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지적과제 중에서도 특히 교육이나 학습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동작성 검사의 과제보다는 이들의 영향을 더 받거나 혹은 반드시 학습해야만 하는 언어성 검사, 어휘력 검사의 과제에서 특히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 언어성 지능이나 수용언어능력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도서관 이용여부와 이용빈도, 장애모 취업여부 등이다. 즉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접하게 되고 취업이 가능한 수준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양육이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인지적으로 자극하는 재료들(예, 책, 교육적 장난감, 미디어)이나 교육적인 활동들에 대한 참여(예, 아동과 책읽기, 인쇄물에 대한 노출, 박

물관이나 도서관 방문 등)가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기능의 예측인이라는 연구(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어린이집 활동시간과 지능의 부적인 상관은 향후 더 면밀한 설계의 연구를 통해 조사되어야 될 부분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질이 교육의 효과에 중요하다는 것(Brooks & Gunn, 2003)을 시사한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특히 장애모의 자녀들처럼 발달초기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지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지 않은 위험집단의 유아들에게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에 앞서(또는 함께) 더 일찍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개별교육, 일대일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은 언어발달이 뒤떨어진 저소득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일대일의 책읽기프로그램 활동이 구어와 문어의 발달에 효과적임을 보여준 연구(이민주, 2006)등에서 지지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영택·이나미(1995). 조기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서울 : 교육개발원
- 강희경·김기현(1999).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어머니의 역할관과 자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2(2), 41-55.
- 김승국·김옥기(1995). 사회성숙도검사. 부산 : 중앙적성출판사.
- 김정우·이미옥(2000).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과 장애의 심리적 극복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6, 101-127.
- 김정진(2004). 재가정신장애 여성의 자녀양육능력 향상을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133-164.

- 김혜경(2005). 여성지체장애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 · 광금주 · 박광배(1996).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지침서. 서울 : 도서출판특수교육.
- 보건복지부(2006).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전담 종합정보시스템 모델개발.
- 안지영(2001). 2, 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혜경(2004). 기혼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실태. 기톨릭대학교 여성평등연구, 8.
- 오혜경 · 김정애(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서울 : 학지사.
- 유명화 · 엄미선(2007).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와 사회적 지원. 재활복지, 11(2), 131-157.
- 이미옥(2000). 여성장애인의 자녀육아가 장애의 심리적 극복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주(2006). 저소득 가정 유아를 위한 그림책읽기 중재활동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덕(1999). 지체장애여성의 결혼과정과 생활에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2007). 여성장애인의 가사 및 육아지원도우미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 이근영 · 장유경(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1), 131-146.
- 이혜경(2007). 여성정신장애인의 모성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리(1997). 취업모의 직업관련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유경 · 이근영 · 광금주 · 성현란(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6(4), 227-241.
- 정정자(2005). 부모의 역할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2005).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집부(2005).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연구소(2002).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조사. 서울 : 한국여성연구소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umwell, L.,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7). Maternal verbal sensitivity and child language comprehen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0*, 247-258.
- Bornstein, M. H., Hahn, C. S., Suwalsky, J. T. D., & Haynes, O. M. (2003).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 The Hollingshead four-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and the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In M. H. Bornstein, & R. H. Bradley(Eds.),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pp.29-82). Mahwah, NJ : Erlbaum.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and Poverty, 7*, 55-71.
- Brooks-Gunn, J. (2003). "Do You Believe in Magic? What We Can Expect From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SRCD Social Policy Report, 17*, 3-14.
- Butterworth, G., & Cochran, E. (1980). Towards a Mechanism of Joint Visual Attention in Human Infanc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 253-272.
- Culp, A., Hubbs-Tait, L., Culp, R. E., & Starost, R. (2000). Maternal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 school involvement : Predictors of kindergarten cognitive competence among Head Start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5*, 5-17.
- Cumming, E. M., & Davies, P. T. (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5*, 73-112.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9), 70-95.
- Fagot, B. I., & Gauvain, M. (1997). Mother-child problem solving : Continuity through the early childhood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480-488.
- Habib, L. A. (1995). Women and disability don't mix : Double discrimination and disabled women's right. *Gender and Development, 3*(2), 49-53.
- Hart, B., & Risley, T.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 Brookes.
- Olson, S. L., Bates, J., & Kaskie, B. (1992). Caregiver-infant interaction antecedents of children's school-age cognitive ability. *Merrill-Palmer Quarterly, 38*, 309-33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th, J. R., Brooks-Gunn, J., & Klebanov, P. (1997). The consequence of living in poverty for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verbal abilit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In G. J. Duncan, & J. Brooks-Gunn(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Y : Russell Sage.

2008년 8월 31일 투고, 2008년 11월 8일 수정
2009년 1월 16일 채택